

“13년간 부당한 대우” vs “황당한 거짓말”

-전 매니저 김모씨

-신현준

계약서 작성 요구도 했지만 거절 수익 10분의1 지급 약속도 안 지켜 매니저 20명 바꿨지만 불만·폭언 신현준 측 “일 그만둔지 오래...황당”



신현준

원로배우 이순재(85)의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신현준(52)이 엇비슷한 의혹에 휘말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의 전 매니저가 “13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폭로성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신현준 측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연예인과 매니저라는 특수성을 가진 직군 사이에서 논란이 연이어 불거져 자 연예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신현준의 막말과 욕설” VS “황당, 거짓말”

9일 신현준의 소속사인 HJ필름의 전 대표이자 매니저 김모씨가 한 매체를 통해 “그로부터 갑질을 당했고, 깊은 실망 감에 죽을까지 생각했다”고 밝혔다.

1995년 신현준의 로드매니저로 일을 시작한 김씨는 “2년 동안 6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서 “신현준이 이후 월급을 100만원으로 올려줬지만 6개월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작품 출연이나 광고 모델 계약 성사 조건으로 해당 수익의 10분의 1을 지급하겠다고 신현준이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불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2억~3억 원 상당의 의류와 휴대폰 광고를 성사시켰지만, 내가 받은 돈은 200만원뿐이었다”며 계약서가 없어 크게 항의할 수 없었고 “한때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신현준으로부터 막말과 욕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일한 7~8년 동안 매니저 20명을 교체해줬지만 신현준은 언제나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현준 측은 김씨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신현준의 현 매니저인 이관용 HJ필름 대표는 이날 “황당하다. 김씨의 주장은 거짓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씨는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면서 “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연예인 매니저도 대가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 본질적 업무에 충실해야”

이순재에 이어 신현준이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리면서 연예계는 이를 심상찮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

다. 또 다른 매니저들이 엇비슷한 피해를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일부 연예인들이 ‘부러먹기’식으로 매니저를 대우한다는 소문이 연예계 안팎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이날 “매니저는 업무 특성상 연예인의 많은 일상영역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만큼 연예인으로서 매니저의 본질적 업무를 뛰어넘어 이들을 마치 개인적인 보좌역처럼 바라보려는 잠재적 위험성과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순재의 전 매니저에 이어 김씨가 연예인 “가족의 허드렛일까지 맡아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예계의 이 같은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는 시선이 많다.

노무법인 위맥의 함용일 공인노무사는 “연예인 매니저도 대가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다”면서 “이런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근로계약 관계상 부당함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블랙핑크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억 돌파



블랙핑크

9일 걸그룹 블랙핑크가 유튜브 공식 채널 누적 조회수 100억뷰를 돌파했다.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와 함께 채널 구독자도 4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미국 빌보드에 따르면 이는 저스틴 비버, 마시멜로, 에드 시런, 에미넴, 아리아나 그란데에 이어 6번째 구독자수이며, 비영어권 아티스트로는 최대 수치이다. 2016년 6월28일 채널을 개설한 지 4년 만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굳혔음을 과시했다. 앞서 블랙핑크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로 ‘공개 24시간 내 유튜브 동영상 최대 조회수’(8630만 건) 등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다.

정국의 ‘유어 아이즈 텔’, 日 영화 주제로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노랫말을 쓴 노래 ‘유어 아이즈 텔(Your eyes tell)’이 한국영화의 일본 리메이크 작 주제가 됐다. 2011년 소지섭과 한효주가 주연한 영화 ‘오직 그대만’을 리메이크한 일본영화 ‘너의 눈동자가 묻고 있다’이다. 사고로 시력과 가족을 잃은 여자와 무명 격투기 선수의 사랑을 그린 영화는 미키 타카히로 감독이 연출하고, 요시타카 유리코, 요코하마 류세이가 주연해 10월 현지 개봉한다. 주제가인 ‘유어 아이즈 텔’은 15일 일본에서 선보일 일본 정규 4집의 수록곡이기도 하다.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막을라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9일 막을 올렸다. 이날 오후 7시 경기도 부천시 CGV소풍에서 상영회를 열고 개막한 영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6일까지 동시에 열린다. 42개국 194편의 영화를 선보이는 영화제 상영회에도 장덕천 명예조직위원장장과 정지영 조직위원장, 신철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영화계 및 개막작 ‘여고괴담 리부트’ 제작 관계자, 심사위원 등만 참석해 열렸다. 배우 안성기, 전도연, 김혜수 등이 영화제 개막 축하와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선보였다.

부활 김태원 ‘인디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록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이 인디뮤지션을 발굴한다. 김태원은 음원사이트 지니뮤직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인디 뮤지션을 돕는 비대면 오디션 프로젝트 ‘김태원식함’을 펼친다. 김태원은 10일부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내건 300여명의 뮤지션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열고 이를 매주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채널 ‘김태원 클라쓰’를 통해 볼 수 있다. 지니뮤직은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한 뮤지션의 앨범을 제작하고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Mnet ‘너목보’ 포맷, 영국 등 유럽 수출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너목보)의 포맷이 유럽에 수출됐다. Mnet 채널을 운영하는 CJ ENM은 9일 ‘너목보’의 포맷이 영국 BBC One과 독일 RTL, 네덜란드 RTL 4를 통해 현지 시청자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너목보’는 앞서 포맷 판권을 구매한 중국, 태국, 불가리아 등 모두 12개국에 소개됐다. ‘너목보’의 이선영 책임프로듀서는 영국판 ‘너목보’ 제작에 참여한 예정이기도 하다. 2015년 첫 방송한 ‘너목보’는 음악의 숨은 실력자를 찾는 무대다.



이민정, 박하선, 황정음(왼쪽부터)이 결혼 후 더욱 성숙해진 모습과 연기로 시청자들 마음을 얻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제2의 전성기 맞은 이민정·박하선·황정음

이민정 ‘한 번 다녀...’ 시청률 33% 박하선 ‘산후조리원’ 현실적인 공감 황정음 ‘그놈이...’ 30대 고민 대변

연기자 이민정, 박하선, 황정음이 결혼 후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소재 삼은 작품에 잇따라 도전해 시청자 공감과 화제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이민정은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소아과 의사 역을 맡고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극 중 남편 이상엽과 이혼한 후 ‘홀로서기’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 마음을 움직인다.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는 병원장 알렉스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심 강한 성격이 매력적이다. 입체적인 캐릭터를 잘 살려내

최근 33%(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견인하는 데 한몫했다.

이에 남편인 이병헌은 다섯 살배기 아이를 돌보며 드라마 촬영현장을 찾는 등 아내의 연기 활동에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풍경이어서 드라마 안팎으로 시선을 모은다.

최근 tvN ‘산후조리원’ 촬영에 참한 박하선은 아이를 갖 낚은 산모로 등장한다. 이제 막 엄마가 된 여성들의 고민을 다룬다. 박하선은 “대본을 본 순간 곧바로 출연을 결심했다”며 2017년 딸을 출산하며 겪은 감정을 연기에 녹여냈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11월 방송하는 드라마 촬영을 8월 중 끝내고 카카오톡이 준비하는 웹드라마 ‘머느라기’의 주인공으로도 나선다. 한 여성이 머느라기로서 시대 식구를 만나며 겪는 고충

을 그린 동명의 웹툰 원작 드라마이다. 아내이자 엄마, 실제 머느라기로서 겪어온 경험을 제대로 표현하게 된 셈이다.

황정음은 6일 첫 방송한 KBS 2TV ‘그놈이 그놈이다’에서 비혼을 선언한 30대 여성을 연기한다. “일과 결혼하겠다”며 비혼식을 치르는 장면으로 포문을 열었다.

남자를 ‘똥차’ ‘벤츠’ 등에 비유하는 말에 “내 두 다리 멀쩡한데 꼭 자동차를 타야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결혼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그려내고 있다. 덕분에 방송 초반이지만 2030세대 여성 시청자의 관심을 얻고 있다. 2016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은 후 2년간 육아에 전념하다 올해 JTBC ‘쌍갑포차’에 이어 ‘그놈이 그놈이다’까지 캐스팅되면서 말끔히 공백을 지운 성과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코로나19시대 패션템 연예인 마스크 뷰티폴

출입국때 얼굴 가리는 수단 탈피 화려한 형광색 등 개성 만점 변신



김혜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시대, ‘연예인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새삼 일고 있다. 연예인들이 마스크에 패션 감각을 가미하면서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연예인 마스크의 ‘호시’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 이주노가 꼽힌다. 1995년 10월 4집 타이틀곡 ‘컴백홈(Come Back Home)’ 무대를 펼치면서 일명 ‘스노보드’ 스타일과 함께 착용했다. 하지만 당시 이는 별 의미 없는 것이었다고 이주노는 훗날 솔회했다.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전날 술을 많이 마셔 숙취를 가리려 쓴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폭발적인 인기로 험입어 파격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비치며 한때 유행했다.

연예인 마스크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며 대중적 시선을 끌어들인 건 2010년대 이후다. 케이팝의 세계적 확산으로 하늘길 왕래가 잦아진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출입국 때 공항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써왔다. 또 많은 연예인이 세간의 시선에 들지 않기 위해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왔다. 감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이 아닌 패션의 한 소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가 일상적 필수품이 되면서 연예인들은 이에 스타일을 더하며 발 빠른 패션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김혜수와 황신혜 등 연예인들이 형광 등 화려한 컬러를 입힌 마스크를 SNS로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연예인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되살려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최근 서울 강남에서 다채로운 컬러와 무늬로 꾸민 마스크가 무대를 채운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다. 빈폴, 해리스 등 패션 브랜드도 다양한 패션 마스크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서로 호응하며 ‘방역 패션’의 또 다른 풍경을 빚어낸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